

勞 動 經 濟 論 集
第20卷(2), 1997. 12 pp.277~300
© 韓國勞動經濟學會

海外直接投資의 國內雇傭效果 推定*

김우영 · 김준영**

< 目 次 >

I. 序 論	V. 推定結果
II. 韓國, 日本의 既存研究	VI. 시뮬레이션
III. 模型의 構成 및 推定方法	VII. 結 論
IV. 資料의 構成	

I. 序 論

국가간의 치열한 무역전쟁, 동시에 정보화·개방화로 인한 경제통합은 현세계경제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많은 국가는 새로운 기술을 찾아, 보다 싼 노동력을 찾아, 혹은 새로운 시장을 찾아 해외직접투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해외직접투자는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전세계의 해외직접투자액은 1980년에 5,000억 달러(미화)이었던 것이 1990년에는 3배가 되는 1조 5,000억 달러(미화)로 증가하였다(Jungnickel, 1993).

한국의 경우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보고에

* 익명의 심사자의 논평에 감사드린다. 이 논문의 오류는 전적으로 필자의 몫이다.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의하면 1986년에 약 1억 6,000만 달러(미화)이었던 해외직접투자액이 1995년에는 27억 5,000만 달러(미화)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0년 사이에 약 17배 증가한 것이며, 전세계의 평균 증가율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해외직접투자는 경제적으로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는 크게 투자국(home country)과 피투자국(host country)으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우선 투자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으로는 국제수지, 국내투자, 고용 등이 있으며, 피투자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으로는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경영기법 이전(management skill transfer), 국제수지, 고용 등이 있다(강태구, 1996). 해외직접투자의 영향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피투자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¹⁾ 앞서 지적한 측면 외에도 임금교섭, 노사관계, 고용안정, 고용조정방법 등에 대한 것도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해외직접투자가 우리나라 국내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해외직접투자가 우리나라 국내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파악은 지난 10년간 급속한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최근 고용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사·정 모두의 관심사이다.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고용효과는 결국에는 경험적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해외직접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하면서 고용을 감소시키는 반면, 또 다른 면에서는 국내로부터 자본재 및 중간재 생산을 유발시켜 오히려 고용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고용효과는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된 효과들의 크기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의 고용효과는 그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해외직접투자는 크게 두 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고도의 기술(high-tech)에 투자하는 외향적 투자(outward investment)와 낮은 기술(low-tech)을 개발도상국에 파는 내향적 투자(inward investment)로 구분할 수 있다(Stopford, 1979). 전자는 주로 선진국에서 행해지는 형태로 고용창출 효과가 많으며 반대로 후자는 중진국이 후진국에 투자하는 형태로서 고용을 창출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topford, 1979).

해외직접투자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고용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해외직접투자의 원인이 낮은 임금의 노동력을 사용하기 위한 것일 경우는 국내고용을 대체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반대로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이 목적이라면 국내고용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1) 이 분야에 대한 연구로는 Weiskopf(1972), Cohen(1973), Morley and Smith(1977), Lecraw(1977), Haddad and Harrison(1993), Malley and Moutos(1994), Aitken, Harrison and Lipsey(1996), Ethier and Markusen(1996) 등이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고용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항상 오차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진정한 고용효과는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경제(real economy)에서의 고용량과 해외직접투자가 없다고 가정한 상태의 가상적 경제(hypothetical economy)에서의 고용량의 차이인데 가상적 경제의 고용량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투자국(home country)의 고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초기의 연구(Bailey, 1979; Stopford, 1979)에서는 고용효과를 다국적기업이 외국에서 고용한 사람들의 수로 측정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최근의 “다국적 기업과 고용(Multinationals and Employment)”이라는 ILO 출판물(1993)에서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방법은 예를 들면 1만 달러의 해외직접투자로 해외에서 500명을 고용하였다면 이러한 투자가 국내에 이루어질 때 똑같이 500명을 고용할 것이라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어 투자국과 피투자국간에 임금, 노사관계, 고용탄력성, 물가 등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고용효과를 추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직접 고용량을 비교하는 것을 피하고 대신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에 투자되었을 때의 국내고용효과를 추정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상적 경제에서는 해외직접투자액만큼이 국내에 투자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지만 고용량에 대한 가정은 없으므로 앞의 방법, 즉 해외고용량을 근거로 하는 방법보다는 조금 우위에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접투자가 우리나라의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최근 일본에서도 사용된 것으로서 고용효과를 투자대체효과, 수출효과, 역수입효과 등으로 분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분해를 통하여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고용효과의 크기뿐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하여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2000년의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고용효과도 예측할 것이며 이에 따른 정책시사점에 대하여도 논의할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기존연구를 간략히 소개하며, 제Ⅲ장에서는 모형의 구성 및 추정방법을 설명하고, 제Ⅳ장에서는 추정에 사용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며, 제Ⅴ장에서는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고용효과를 측정하고, 제Ⅵ장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하며, 마지막으로 제Ⅶ장에서는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고용문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한다.

II. 韓國, 日本의 既存研究

해외직접투자가 국내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電機連合 編, 1995). 첫째,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국내투자의 대체효과로 인한 고용감소효과가 있다. 둘째, 해외직접투자 및 생산과정에서 국내로부터 자본재를 조달할 경우 국내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며, 그에 따른 고용증가효과가 발생한다. 셋째,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을 경우 파생되는 생산유발효과는 국내의 고용을 증가시킨다. 넷째,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역수출할 경우 발생하는 국내 생산의 대체는 국내고용을 감소시킨다. 마지막으로, 해외시장에서 해외직접투자 기업과 국내기업이 경쟁하는 경우 국내기업에 대한 수출대체효과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고용 감소효과가 있다.²⁾

<표 1> 해외직접투자의 국내고용효과에 대한 김원태 외(1997)의 추정 결과

(단위: 명)

	국내투자 대체효과	수출효과	총효과
1988	-9,417	2,389	-7,028
1989	-18,212	4,120	-14,091
1990	-27,468	4,453	-23,051
1991	-27,403	3,679	-23,724
1992	-26,186	2,935	-23,251
1993	-23,432	1,324	-22,108
1994	-37,704	1,857	-35,847
1995	-44,398	1,998	-42,400
전 체	-214,223	22,756	-191,467

자료: 김원태 외(1997), 『海外投資의 要因, 影響 및 政策分析』, 68쪽.

- 2) 익명의 논평자는 국내로부터의 자본재, 부품조달에 따른 생산유발효과가 국내투자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며, 따라서 해외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재, 부품조달의 생산유발효과 및 고용효과를 해외투자의 효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우리가 정의하는 해외투자의 국내고용효과는 앞서 지적하였듯이 해외투자액만큼 국내에 투자되었을 때 발생하는 국내고용효과이며, 해외투자가 국내투자와 다르게 발생하는 고용효과는 아니다. 이러한 정의는 해외투자의 역수입 효과 및 수출대체효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외직접투자의 국내고용효과를 분석한 국내 연구로는 김원태 외(1997)의 「海外投資의 要因, 影響 및 政策分析」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전체 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 측면에서만 추정하였다. 첫째는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투자를 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고용효과이다. 둘째는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고용의 변화로서, 위에서 제시된 해외직접투자의 국내고용효과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영향을 포괄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투자대체로 인한 고용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연도별 해외직접투자액을 1인당 노동장비율로 나누는 방법이 이용되었으며,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수출변화³⁾로 발생하는 고용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연도별 수출변화를 1인당 매출액으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의 결과를 보면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총고용효과는 陰의 부호로 나타나며 고용손실량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5년 현재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고용손실이 약 42천 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고용손실은 절대적 양으로 보면 큰 수치는 아니나, 1995년 현재 실업자수가 419천 명이고 경제활동인구가 20,797천 명인 것을 감안할 때 42천 명의 고용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전체 실업자수가 10% 이상 감소될 수 있고, 실업률도 0.2%포인트 감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치이다.⁴⁾

한편, 해외직접투자의 국내고용효과에 대한 일본에서의 연구인 電機連合 編(1995)은 1990년의 405×405 부문 산업연관 분석의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1993년 해외직접투자의 국내고용효과를 추정하고 있으며, 2000년 및 2005년의 고용효과에 대한 예상추정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액,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 조달비율, 부품 조달액, 역수입액, 현지 매출액에 대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해외직접투자의 국내고용효과에 대한 다섯 가지 영향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추정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듯이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일본에서의 고용감소효과는 한국에서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난다. 1993년을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약 22천 명의 고용감소가 나타나는 데 비해 일본에서는 514천 명의 고용감소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993년 현재 일본의 경제활동인구는 66,158천 명, 실업자수는 1,558천 명이므로 만일 514천 명의 고용감소가 없었다면 실업자수를 33%로 줄일 수 있고 실업률을 0.9%포인트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⁵⁾ 이렇게 일본에서의 고용효과가 한국에서 보다 크게

3) 김원태 외(1997)의 연구에서, 해외투자에 따른 수출변화는 한국은행의 거시계량모델인 BOKAM90의 수출함수를 이용하여 추정되었다.

4) 1995년의 실업률은 2%이고 만일 해외투자로 인한 고용감소효과가 없었다면 실업률은 1.8%로 추정된다.

나타나는 이유는 해외직접투자 규모에 있어서 일본이 한국보다 무려 2배 이상이기 때문이며⁶⁾ 동시에 산업공동화 현상도 일본에서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2> 해외직접투자의 국내고용효과에 대한 일본 電機連合 編(1995)의 추정 결과

(단위, 명)

	현 재	산업 공동화가 정지되는 경우		산업 공동화가 진행되는 경우	
	1993	2000	2005	2000	2005
가 전	-23,385	-30,842	-28,415	-96,613	-146,321
중 전	1,485	331	304	-14,886	-37,520
통신·컴퓨터	-4,143	-5,748	-5,065	-27,933	-67,118
반도체·전자부품	-40,699	-39,266	-34,581	-89,306	-142,849
기 타	-26,251	-31,450	-29,997	-84,459	-117,634
소계: 전기산업	-94,994	-106,975	-97,754	-313,195	-511,443
기타 제조업	-223,791	-291,913	-334,571	-672,386	-1,014,198
기타 산업	-195,060	-225,762	-223,433	-610,350	-953,471
합 계	-513,844	-624,650	-665,758	-1,595,931	-2,479,112

자료: 日本電機連合 編(1995), 『創造と革新への挑戦』 37쪽.

김원태 외(1997)의 연구는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수출변화를 추정하여 이를 국내고용효과에 추정해 포함시켰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생산, 매출에 대한 국내 통계자료상의 한계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⁷⁾ 그러나 김원태 외(1997)는 국내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직접투자의 역수입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의 고용효과를 단순히 투자액/자본장비율(산업전체)로 계산함으로써 산업간 연관효과를 무시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산업별 고용효과는 김원태 외(1997)에서는 파악될 수 없다.

반면에 일본 電機連合 編(1995)의 연구는 일본 통산성의 「해외사업활동 기본조사」에

- 5) 1993년 일본의 실업률은 2.5%이다. 따라서 해외투자로 인한 고용감소가 없었다면 실업률이 1.6%로 하락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 6) 1993년 현재 총해외투자액은 한국이 약 12억 6천만 달러이며 일본이 약 27억 6천만 달러이다.
- 7) 현재 한국의 해외투자에 관한 공식자료는 한국은행의 「해외투자통계연보」와 「해외투자 현지법인 현황」이 있으나, 해외투자에 의한 생산 및 매출에 대한 총량(aggregate) 자료는 없음. 다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서 표본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기초한 공식 데이터를 이용해 산업별 고용변화량을 추정했으며,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생산 및 고용변화에 대한 산업간 연관효과를 포함하고 있다. 산업연관분석은 생산부문 상호간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보여주는 산업간 순환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소득의 발생으로부터 분배 및 처분과정을 나타내는 소득순환을 나타내는 국민소득 분석상의 배후의 산업간 순환을 대상으로 산업부문간의 상호 의존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소비, 투자 및 수출 등 거시적 총량변수와 임금, 환율 및 원자재가격 등 가격변수의 변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한국은행, 1987).

따라서 산업연관분석에 의거한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국내 생산의 변화량을 추정(및 이에 따른 국내 고용변화량 추정)할 경우 각 산업별 생산변화량(및 이에 따른 국내 고용변화량)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산업의 생산변화로 인한 다른 산업들의 생산변화를 투입계수를 통한 일련의 승수효과로 측정할 수 있게 되어 해외직접투자가 산업들 상호간에 미치는 생산 및 고용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의 이같은 장점을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의 국내고용효과를 추정하기로 한다.

Ⅲ. 模型의 構成 및 推定方法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해외직접투자의 국내고용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은 電機連合 編(1995:41-42)의 분석모형을 부분 조정하여 사용하며⁸⁾, 1988, 1990, 1993년의 고용효과를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⁹⁾

우선, 추정과정에 사용되는 변수는 아래와 같다.

A' : t 년의 산업연관표상의 중간투입계수행렬

8) 원 모형에서는 해외투자로 인한 국내고용효과를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으나 여기서는 통계자료상의 한계로 자본재 및 부품조달에 따른 국내생산유발효과와 현지 및 제3국에서의 경쟁으로 인한 수출대체효과를 수출효과로 통합하였다. 따라 여기 사용된 모형에서는 해외투자로 인한 국내고용효과가 세 가지로 구분된다.

9) 여기서 고용효과 추정치 1988, 1990, 1993년만으로 한정된 이유는 추정에 사용되는 d_t (t 년의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수출변화량 벡터), d_t (t 년의 역수입 벡터)에 대한 자료가 1988년 이후부터 취득 가능하였으며, 1988년 이후 발간된 산업연관표가 위의 3개 연도에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 M' : t 년의 수입벡터
- \overline{M}' : t 년의 수입계수행렬
- \overline{M}' : 조정된 수입계수행렬
- Fd' : t 년의 국내최종수요벡터
- AD'_a : t 년의 국내총수요
- Ex' : t 년의 수출벡터
- X' : t 년의 국내생산벡터
- N' : t 년의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수
- \overline{L}' : t 년의 고용계수행렬
- I : 단위행렬
- D'_1 : t 년의 투자대체벡터
- D'_2 : t 년의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수출변화량벡터
- D'_3 : t 년의 역수입벡터

기본모형은 경쟁수입형 생산자가격 평가표의 투입계수를 사용하며, 이때 생산유발계수는 수입을 내생변수로 간주하되 최종수요항목 중 수출은 다른 항목과 별도로 취급하여 수입품이 수출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도출된다.

$$X' = (I - (I - \overline{M}')A')^{-1} [(I - \overline{M}')Fd' + Ex'] \dots\dots\dots (1)$$

식 (1)은 일종의 소득방정식을 나타내며 여기서 $(I - (I - \overline{M}')A')^{-1}$ 은 경쟁수입형 생산유발계수로서 최종수요 1단위가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산출단위를 나타낸다. 이 기본모형을 통해 최종수요 (Fd' 와 Ex')가 주어질 경우 산출액을 추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최종수요변화(D'_1 부터 D'_3 까지)에 따른 산출액의 변화량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추정된 산출액 변화량에 고용계수를 곱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고용효과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고용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우선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i 산업의 수입계수 $\overline{M}'_i (= \frac{M_i}{AD_{ai}})$ 를 해외직접투자 및 그에 따른 역수입에 의한

국내총수요 변화를 고려한 i 산업의 '조정된 수입계수' $\bar{M}'_i (= \frac{M_i - D'_{3i}}{AD_{di} + D'_{1i}})$ 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정된 수입계수는 생산유발계수와 함께 생산변화량을 추정하는 데 이용되는데, 먼저 투자대체에 의한 생산량의 변화는 아래 식 (2)를 통해 얻어질 수 있으며, 陰(-)의 부호를 갖는다.

$$dX_1 = (I - (I - \bar{M}')A)^{-1}(I - \bar{M}')D_1 \dots\dots\dots (2)$$

투자대체에 의한 생산량 변화(dX_1)로 발생하는 고용변화는 따라서 다음의 식으로 추정된다.

$$dN_1 = \bar{L} dX_1 \dots\dots\dots (3)$$

둘째,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자본재 수출유발효과, 부품 수출유발효과 그리고 수출대체효과를 포함하는 수출효과에 의한 생산변화량을 추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식을 구성한다. 이 때, 수출유발효과가 수출대체효과보다 클 경우 陽(+)의 부호를 가지며, 반대 경우에는 陰(-)의 부호를 갖는다.

$$dX_2 = (I - (I - \bar{M}')A)^{-1}D_2 \dots\dots\dots (4)$$

식 (3)과 마찬가지로 해외직접투자의 수출효과에 의한 생산량 변화(dX_2)로 발생하는 고용변화는 식 (5)를 통해 추정한다.

$$dN_2 = \bar{L} dX_2 \dots\dots\dots (5)$$

마지막으로,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역수입에 의해 발생하는 생산 및 고용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역수입을 포함한 '조정된 수입계수' \bar{M}' 을 사용할 때의 생산량과 해외직접투자 및 그에 따른 역수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상태에서의 수입계수 \bar{M}' 을 사용할 때의 생산량의 차이를 추정하며, 이에 따른 고용변화를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부호는 식 (2)에서와 마찬가지로 陰(-)의 부호를 갖는다.

$$dX_3 = (I - (I - \bar{M}')A)^{-1}[(I - \bar{M}')(Fd + D_1) + Ex - D_2] \\ - (I - (I - \bar{M}')A)^{-1}[(I - \bar{M}')(Fd + D_1) + Ex - D_2] \dots\dots\dots (6)$$

$$dN_3 = \bar{L} dX_3 \dots\dots\dots (7)$$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국내 총고용효과는 식 (3), (5), (7)의 결과를 합한 식 (8)이 된다.

$$dN = dN_1 + dN_2 + dN_3 \dots\dots\dots (8)$$

IV. 資料의 構成

기본모형에 사용된 변수들 가운데 A'부터 X'까지는 한국은행의 1988, 1990, 1993년 「산업연관표」 가운데 통합중분류(1993, 1990년은 75×75 부문표, 1988년은 65×65 부문표)의 생산자가격 평가표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 해외직접투자 통계(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가 8개 산업분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산업연관표」의 통합중분류를 다시 통합·조정하여 8×8 생산자가격 평가표를 구성하여 이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중간투입계수, 국내총수요, 수출, 수입, 수입계수 등의 정보는 <부표 1>부터 <부표 6>에 실려 있다.

다음으로 고용계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우리는 『노동통계연감』(노동부)의 산업중분류별 근로자수에 기초하여 8개 산업의 근로자수(N')를 구하였으며¹⁰⁾, 산업별 고용계수(\bar{L}')는 생산부문 및 고용부문이 조정된 8개 산업분류에 따라 각 산업의 근로자수를 산업연관표상의 각 산업의 총산출액으로 나누어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고용계수는 <표 3>과 같이 나타난다.

<표 3>에 나타난 고용계수의 추이를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반적으로 고용계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광업, 제조업에서는 고용계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최근 제조업부문의 고용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1997)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관련 변수들(D'_1 에서 D'_3 까지)의 구성은 <표 4>와 같다.

먼저 각년도의 투자대체백터(D'_1)는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의 각년도 산업별

10) 우리가 사용한 「노동통계연감」은 5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 5인 미만 사업장을 포괄하는 고용 자료가 없는 관계로 불가피하였다.

순투자액을 각년도 환율에 따라 원화로 계상하였다.11)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수출변화

<표 3> 산업별 총산출액, 5인 이상 근로자수 및 고용계수¹²⁾

	산업분류	총산출액 (백만원)	5인 이상 근로자수 (명)	고용계수
1988	임업	740,283	164	0.000222
	수산업	2,323,487	21,062	0.009065
	광업	1,711,477	84,566	0.049411
	제조업	156,013,730	3,129,416	0.020059
	건설업	21,735,581	246,101	0.011322
	무역업	20,518,615	278,705	0.013583
	운수·보관	12,241,074	395,841	0.032337
	기타	80,703,853	972,117	0.012045
1990	임업	656,633	69	0.000105
	수산업	2,827,083	19,893	0.007037
	광업	2,222,012	59,956	0.026983
	제조업	206,673,117	3,138,031	0.015184
	건설업	43,722,213	304,202	0.006958
	무역업	276,947,481	288,248	0.010408
	운수·보관	5,804,452	419,286	0.026530
	기타	117,364,842	1,135,928	0.009679
1993	임업	815,310	270	0.000331
	수산업	3,669,208	14,585	0.003975
	광업	3,125,493	38,568	0.012340
	제조업	295,509,628	2,817,808	0.009535
	건설업	64,548,527	525,555	0.008142
	무역업	35,563,823	377,541	0.010616
	운수·보관	24,247,533	446,567	0.018417
	기타	185,325,198	1,512,736	0.008163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1993, 1990, 1988년.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각년도.

- 11) 김원태 외(1997)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모든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모든 투자, 소비는 최소한의 대체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 해외의 석유사업법에 투자할 경우, 이같은 투자가 국내 석유사업 투자와 직접적인 대체관계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같은 대체관계를 고려한 순대체투자만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모든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익명의 논평자는 낮은 노동비용을 목적으로 한 해외투자와 현지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해외투자의 국내고용효과는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이 또한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두 가지 유형의 투자를 구별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며 다만, 일본생산성본부의 보고(A. Sato, 1997)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997)의 표본조사에 따르면 해외투자의 가장 큰 동기가 낮은 노동비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12) 이하 모든 화폐단위는 각년도 환율을 고려하여 원화 백만원으로 계상되었다. 따라서 고용계수의 산정은 '명/백만원'의 단위로 계산되었다.

<표 4>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수출변화 및 역수입액¹³⁾

(단위, 백만원)

	1988			1990			1993		
	D_1	D_2	D_3	D_1	D_2	D_3	D_1	D_2	D_3
임업	-1,580	-499	-3,833	2,767	393	3,571	3,025	246	2,286
수산업	9,747	3,080	23,648	16,410	2,329	21,175	-1,787	-145	-1,348
광업	10,069	3,182	24,429	27,879	3,956	35,973	43,772	3,559	33,072
제조업	58,291	18,423	141,426	330,292	46,871	426,193	381,472	31,014	288,222
건설업	4,469	1,413	10,843	1,129	160	1,457	15,523	1,262	11,728
무역업	29,477	9,316	71,517	156,929	22,270	202,494	313,933	25,523	237,193
운수·보관	377	119	916	1,216	173	1,569	4,706	383	3,556
기타	3,715	1,174	9,014	38,427	5,453	49,585	53,869	4,380	40,701
전 체	114,565	36,208	277,960	575,409	81,605	742,017	814,513	66,222	615,410

자료: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1996.

김원태 외, 『海外投資의 要因, 影響 및 政策分析』, 1997.

량을 나타내는 D_2 는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유발되는 자본재, 중간재 수출효과와 피투자국 및 제3국의 해외시장에서 해외투자생산물과 국내생산물과의 경쟁관계로 발생하는 수출대체효과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변수 D_2 와 역수입벡터 D_3 에 대해서는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자본재, 부품수출 및 역수입액에 대한 국내의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김원태 외(1997)의 추정자료를 사용하였다. 단, 김원태 외(1997)의 추정자료는 전산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수출변화와 역수입액을 각년도 8개 산업의 해외직접투자 비중에 따라 나누어 사용하였으며, 각년도 환율에 따라 원화로 계상하였다.

<표 4>를 보면 해외직접투자(D_1), 수출변화(D_2), 역수입(D_3) 모두 1990년까지 증가하나 1993년에 와서는 해외직접투자(D_1)는 계속 증가하지만, 수출변화(D_2)와 역수입(D_3)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990년 이전에는 역수입이 해외직접투자를 증가하였으나 1993년에 이르러서는 반대로 해외직접투자가 역수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수입이 해외의 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본국에 수출하면서 기존 산업을 대체한다고 가정한다면 1990년 이후 역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해외직접투자가 저기술(low-tech)부문에서 고기술(high-tech)부문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13) 해외투자(D_1)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해외자본의 철수 혹은 청산에서 비롯된 것이고, 수출변화(D_2)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수출대체효과가 수출유발효과보다 더 큰 데서 비롯된 것이며, 역수입(D_3)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해외자본의 철수 혹은 청산으로 인해 공백으로 남게 된 시장에 국내기업이 수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자료로는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불충분하며, 앞으로의 추이를 좀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V. 推定結果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해외직접투자의 국내고용효과에 대한 추정결과는 <표 5>, <표 6> 그리고 <표 7>에 나타나 있다. 먼저 1988년의 경우를 보면 해외직접투자자로 인한 국내 총고용효과는 5,014명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김원태 외(1997)의 추정결과보다는 약 2,000명 적은 것으로 이러한 차이는 김원태 외(1997)의 모형과는 달리 우리 모형에서는 산업연관효과와 역수입을 고려하였으며 또한 고용계수의 산정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무역업, 기타산업, 수산업, 운수·보관업, 건설업 등의 순으로 고용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고용감소효과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나 되어 해외직접투자자로 인한 고용감소효과의 많은 부분이 제조업부문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고용감소효과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고용효과 추정치 가운데 역수입에 의한 고용감소(-3,295명)가 투자대체에 의한 고용감소(-2,966명)보다 크게 나타나, 해외에서 생산된 상당부분의 제품이 국내시장으로 역수입되어 국내고용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국내시장을 주요 판매처로 한 노동집약적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해외직접투자자로 인한 수출효과는 고용을 약 1,248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국내로부터의 자본재·부품조달효과가 수출대체효과를 능가하기 때문이다.

1990년의 경우에는 총고용감소효과가 약 242%(1988년 기준) 증가한 17,16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표 6>에 나타나듯이 투자대체로 인한 고용감소효과가 1988년에 비해 무려 4배 가량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투자대체로 인한 고용감소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물론 1988년과 1990년 사이에 해외직접투자액이 무려 5배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¹⁴⁾.

14) <표 4>의 D₁을 참조.

<표 5> 1988년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국내 고용효과

(단위, 명)

	dN_1	dN_2	dN_3	$dN(=dN_1+dN_2+dN_3)$
임업	0.07	-0.08	0.09	0.08
수산업	-84.96	29.94	-134.12	-189.13
광업	-170.60	175.51	-26.53	-21.62
제조업	-1,760.31	707.51	-1,946.07	-2,998.87
건설업	-65.68	21.81	-126.30	-170.16
무역업	-468.04	154.63	-566.13	-879.54
운수·보관업	-91.80	34.33	-113.52	-170.99
기타 산업	-325.29	123.94	-382.46	-583.81
전 체	-2,966.60	1,247.58	-3,295.04	-5,014.06

1990년의 경우에도 우리의 고용효과 추정치가 김원태 외(1997)의 추정치보다 약 6,000명 적은 것으로 나타나 김원태 외(1997)의 추정방법이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고용효과를 과대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93년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산업별 고용효과는 1988년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역시 제조업에서의 고용감소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1990년에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제조업부문의 고용감소효과는 10,696명으로 1988년보다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총고용감소효과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62%나 되어 1988년보다 그 비중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은 1988년과는 달리 고용효과 추정치 가운데 투자대체에 의한 고용감소(-11,924명)가 역수입에 의한 고용감소(-7,339명)보다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1988년과 1990년 사이에 해외직접투자액의 증가가 역수입액의 증가를 훨씬 능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수입에 의한 고용감소는 1988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국내시장을 주요 판매처로 한 노동집약적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1990년에는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수출효과 때문에 고용이 약 2,103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1988년보다는 증가한 수치이지만 투자대체효과나 역수입효과의 증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에 기인한 국내로부터의 자본재·부품조달효과는 상대적으로 증가가 둔화된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1993년에는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고용감소효과가 15,096명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1990년보다는 약 2,000명 감소한 수치이다. 1993년 고용감소효과가 완화된 것

<표 6> 1990년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국내고용효과

(단위, 명)

	dN_1	dN_2	dN_3	$dN(=dN_1+dN_2+dN_3)$
임업	-0.26	0.07	-0.09	-0.28
수산업	-122.14	19.11	-110.21	-213.24
광업	-315.49	131.04	-36.89	-221.36
제조업	-7,457.13	1,323.68	-4,561.59	-10,695.00
건설업	-61.45	10.01	-43.14	-94.59
무역업	-1,917.53	280.66	-1,276.92	-2,913.79
운수·보관업	-381.33	63.80	-246.88	-564.42
기타 산업	-1,668.58	274.18	-1,063.05	-2,457.45
전체	-11,923.92	2,102.54	-7,338.77	-17,160.20

은 <표 7>에서 보듯이 투자대체로 인한 고용감소는 증가하였으나 역수입으로 인한 고용감소효과가 크게 줄어들어 국내 고용대체가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1990년과 비교할 때 1993년의 고용효과가 감소한 것은 김원태 외(1997)의 결과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별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제조업에서의 고용감소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총고용감소효과 중 제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과거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제조업부문의 고용효과가 감소한 것 역시 역수입으로 인한 고용효과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편,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고용증가 요인으로 나타난 수출효과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총고용효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년도에 따라 24.9%, 12.3%, 7.7%로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 자본재나 중간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거나, 또는 해외직접투자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지 시장이나 제3국의 시장에서 국내생산물과 경쟁하여 국내생산물을 대체하여 발생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적어도 1993년까지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국내 고용감소는 전체 노동력의 규모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최근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¹⁵⁾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고용증가 요인인 수출효과가 감소하고 있어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국내 고용감소효과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5) 1994년 이후 최근 3개년간의 해외투자액은 95억 5,000만 달러로 1968년 이후 1996년까지 우리나라 해외투자누계의 약 60%에 해당된다.

<표 7> 1993년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국내 고용효과

(단위, 명)

	dN_1	dN_2	dN_3	$dN(=dN_1+dN_2+dN_3)$
임업	-0.80	0.12	-0.32	-1.00
수산업	-0.99	0.15	1.94	1.10
광업	-190.74	51.00	-28.91	-168.65
제조업	-5,647.32	561.93	-1,629.64	-6,715.02
건설업	-218.72	18.85	-70.80	-270.67
무역업	-3,665.26	304.96	-1,455.38	-4,815.67
운수·보관업	-471.12	43.37	-164.79	-592.54
기타 산업	-2,051.91	188.43	-670.31	-2,533.79
전체	-12,246.85	1,168.82	-4,018.21	-15,096.20

지금까지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고용효과를 투자대체효과(dN_1), 수출효과(dN_2), 그리고 역수입효과(dN_3)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하지만, 매해마다 해외직접투자액(D_1), 수출변화액(D_2), 역수입액(D_3) 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들 중 어떤 것이 고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1993년의 경우 투자대체로 인한 고용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지만 이는 그 해의 해외직접투자액이 수출변화액이나 역수입액보다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세 가지 효과 중 어느 것이 가장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동일한 조건을 가정할 필요가 있다.

<표 8>은 해외직접투자액, 수출변화액, 역수입액이 같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고용효과를 추정한 것이다(기준은 해외직접투자액).

<표 8>은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해외직접투자액, 수출변화액, 역수입액이 동일하다고 보았을 때, 즉 $D_1=D_2=D_3$ 일 때, 국내로부터의 자본재 또는 부품수입으로 인한 고용증대효과(dN_2)는 오히려 투자대체(dN_1)나 역수입(dN_3)으로 인한 고용감소효과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총고용감소효과를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용효과(절대값)는 수출변화(dN_2)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투자대체(dN_1), 역수입(dN_3) 순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패턴은 1988, 1990, 1993년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¹⁶⁾

16) 지면을 줄이기 위하여 1988, 1990년의 결과는 보고하지 않았다. 1988, 1990년의 결과는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 있다.

<표 8> 1993년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국내고용효과($D_1=D_2=D_3$ 의 경우, D_1 기준)

(단위, 명)

	dN_1	dN_2	dN_3	$dN(=dN_1+dN_2+dN_3)$
임업	-0.80	1.49	-0.40	0.29
수산업	-1.00	1.86	2.32	3.18
광업	-191.46	627.63	-38.19	397.99
제조업	-5,652.45	6,914.26	-2,229.47	-967.66
건설업	-218.91	231.94	-156.01	-142.98
무역업	-3,674.77	3,752.23	-1,922.81	-1,845.35
운수·보관업	-471.82	533.64	-222.59	-160.77
기타 산업	-2,054.74	2,318.47	-923.21	-659.49
전체	-12,265.95	14,381.51	-5,490.36	-3,374.79

주: D_1 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 dN_1 은 <표 7>의 dN_1 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조정된 수입계수[$\bar{M}' = (M - D_1)/(AD_e + D_1)$]의 값이 변했기 때문이다.

<표 8>의 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고용감소효과를 줄이기 위하여는 해외직접투자액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 오히려 수출효과를 늘리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또는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고용감소를 막기 위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줄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며 오히려 국내로부터 자본재, 부품조달을 필요로 하는 해외직접투자로 유도하여 수출효과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수출효과를 늘리는 해외직접투자란 국내로부터 자본재나 부품을 조달하고 현지에서는 단순히 조립만 하는 조립산업의 투자일 수도 있고, 국내에서 자본재나 부품생산을 창출하는 고기술(high-tech)산업에 대한 투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조립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에는 현지 기술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본재나 부품도 현지에서 조달하게 될 것이고 결국 고용증대효과는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수출효과를 늘리기 위하여는 고기술(high-tech)부문의 투자를 통하여 국내에서 자본재나 부품생산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VI. 시뮬레이션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결과를 기초로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2000년의 고용효과를 추정한다. 추정방식은 제Ⅲ장에서 제시한 모형을 따르며 자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1983년부터 1993년 사이의 7개년 산업연관표상에서 조정된 8개 산업별 총산출액, 총수요액, 수출액, 수입액 및 최종수요액을 이용하여 2000년의 총산출액, 총수요액, 수출액, 수입액 및 최종수요액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추정한다.¹⁷⁾ 다음으로 1983년부터 1993년 사이의 7개년 『노동통계연감』(노동부)의 산업중분류별 5인 이상 근로자수를 이용하여 2000년의 8개 산업별 5인 이상 근로자수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추정하며, 이를 2000년 총산출 추정액으로 나누어 2000년의 고용계수를 구한다. 2000년의 투자대체벡터(D_t)에 대한 추정액은 1981년부터 1995년까지 각년도 산업별 해외순투자액을 이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를 사용하며, 마지막으로 2000년의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수출변화액 및 역수입액에 대한 추정치는 김원태 외(1997)의 1988년부터 1995년까지 8개년간 수출변화액 및 역수입액을 이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를 사용한다.¹⁸⁾

이상의 방법으로 구해진 자료를 이용하여 제Ⅲ장에서 제시한 모형에 따라 2000년 해외직접투자의 국내고용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단, 여기서 2000년의 투입계수행렬(A')은 1993년의 투입계수행렬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¹⁹⁾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0년의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국내고용효과는 195,320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같은 추정치는 1993년의 고용감소 추정치의

17) 2000년의 총산출액, 총수요액, 수출액, 수입액 및 최종수요액 그리고 해외순투자액, 수출변화액, 역수입액의 추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회귀분석을 하고, 이같은 회귀방정식에 의한 추정결과에 기초하여 각 변수에 대한 2000년의 예상 추정액을 구하기 위해, $Y = e^{a+bt}$ 의 지수방정식을 이용하였다(t 는 시간변수).

$$\ln Y = a + bt, \quad (Y > 0)$$

단, $Y < 0$ 인 경우에는 $Y = a + bt$ 의 회귀방정식이 사용되었다(변수는 동일).

18) 2000년의 해외순투자, 해외투자에 따른 수출변화, 역수입에 대한 추정액은 현재(1997년 9월 23일)의 환율에 따라 원화로 계상하였다.

19) 각 산업부문의 생산물이 동질성을 가지고, 각 산업부문 생산물의 생산규모에 관계없이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부가가치 비율이 일정할 경우에는 산업연관분석에서 투입계수는 시간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았다(한국은행, 1987).

<표 9> 2000년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국내고용효과 시뮬레이션 결과

(단위, 명)

	dN_1	dN_2	dN_3	$dN(=dN_1+dN_2+dN_3)$
임업	-5.18	0.07	-0.71	-5.83
수산업	-136.67	1.93	-19.70	-153.83
광업	-1,415.37	21.58	-189.04	-1,582.82
제조업	-118,717.60	1,680.82	-16,421.82	-133,459.00
건설업	-951.21	12.54	-89.66	-1,028.33
무역업	-23,290.19	282.50	-1,506.98	-24,514.70
운수·보관업	-6,388.03	87.27	-753.92	-7,054.68
기타 산업	-24,931.21	340.57	-2,930.84	-27,521.50
전체	-175,835.50	2,427.29	-21,912.05	-195,320.00

약 13배에 달하며, 1988년과 1993년 사이의 고용감소 추세보다 더 빠른 추세로 고용감소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국내 고용감소효과가 이처럼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1994년 이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아 전체고용감소 가운데 약 68.3%(133,459명)의 고용감소가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이 높은 비중은 해외직접투자가운데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기타 산업, 무역업, 운수·보관업 등의 순으로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00년 해외직접투자의 국내고용효과 예상추정치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투자대체로 인한 고용감소효과(175,836명)가 가장 크고 그 비중도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역수입에 의한 고용감소효과는 21,912명으로 1993년에 비해 약 5.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수출효과에 의한 고용증가효과(2,427명)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전체 고용효과 가운데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1.2%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결과는 1988, 1990, 1993년 사이에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고용증가효과가 총고용효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9%, 12.3%, 7.7%로 각각 하락하고 있다는 것과 일치하며, 따라서 앞으로 해외직접투자의 총고용효과 중에서 수출효과로 인한 고용증가의 비중이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라는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액이 증가하면 고용감소효과와 고용증가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데 위의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고용증가효과는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

는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투자대체효과가 수출효과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예상은 해외직접투자 및 생산에 따른 본국으로부터의 자본재·부품조달 현상이 줄어드는 대신 현지화의 비중이 확대되어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수출효과가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VII. 結 論

지금까지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의 국내고용효과를 투자대체, 수출변화, 역수입효과의 각 요인별로 과거 1988, 1990, 1993년에 대해 추정하고, 해외직접투자가 국내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이 세 요인들의 단위당 고용효과도 추정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2000년의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국내고용효과를 예측해 보았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과 1993년 사이에 약간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해외직접투자의 고용감소효과 추세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총고용감소는 1988년 5,014명에서 1993년 15,096명으로 5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2000년에 대한 추정을 통해서도 확인될 뿐만 아니라 더욱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국내의 고용감소 요인은 1차적으로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투자대체효과에서 찾을 수 있으며, 역수입에 의한 고용 손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고용증가효과로 나타난 수출효과가 상대적으로 감소함으로써 고용감소 추세는 더욱 심화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투자대체, 수출변화, 역수입의 단위당 고용효과는 수출변화에 따른 고용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변화로 인한 고용효과는 플러스로 나타나므로 해외직접투자가 반드시 국내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에는 일정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동시에 이는 수출변화의 증감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고용감소현상이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추정결과는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가정하에서,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고용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투자유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즉 국내고용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해외직접투자 유형은 국내의 자본재나 부품수출을 수반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해외생산이 점점 현지화의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피투자국(host country)의 생산 및 기술력이 자본재·부품의 현지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수출효과는 점점 감소하거나 負(-)의 효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국내로부터의 자본재·부품수출을 수반하는 유형의 해외직접투자는 결국, 단순조립공정의 형태를 벗어난 고기술(high-tech)부문의 투자를 의미하며, 이같은 유형의 해외직접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국내고용감소를 완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와 같이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생산이 기술이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기술(high-tech)부문의 해외직접투자 및 생산 역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자본재 및 부품의 현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므로 해외직접투자 및 생산부문에 대한 국내에서의 지속적인 기술혁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 강태구 (1996), 『多國籍企業 經營論』, 貿易經營社.
- 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1997), 『1997年 勞動力 需給展望』.
- 김원태 외 (1997), 『海外投資의 要因, 影響 및 政策分析』, 삼성경제연구소.
- 한국은행 (1987), 『산업연관분석해설』.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1983, 1985, 1986, 1987, 1988, 1990, 1993년.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각년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7), 『기업의 해외투자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분석』.
- 電機連合 編 (1995), 『創造と革新への挑戰: 電機産業の發展と新しい 勞使關係』.
- Aitken, B., A. Harrison, and R. Lipsey (1996), "Wages and Foreign Ownership: A Comparative Study of Mexico, Venezuel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40, pp.345~371.
- Bailey, P. J. (1979), *Employment Effect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A Survey of Relevant Studies Relating to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 Cohen, B. I. (1973), "Comparative Behavior of Foreign and Domestic Export Firms in a Developing Econom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55, pp.190~197.

- Ethier, W. and J. Markusen (1996), "Multinational Firms, Technology Diffusion and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41, pp.1~28.
- Haddad, M. and A. Harrison (1993), "Are there Positive Spillovers from Direct Foreign Investment?",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42, pp.54~74.
- Jungnickel, R. (1993), "Recent Trend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Multinationals and Employment*, eds. by Bailey, P., Parisotto, A. and Renshaw, G.,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 Lecraw, D. (1977), "Direct Investment by Firms from Less Developed Countries", *Oxford Economic Papers*, vol. 29, pp.442~457.
- Malley, J. and T. Moutos (1994), "A Prototype Macroeconomic Model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43, pp.295~315.
- Morley, S.A. and G.W. Smith (1977), "The Choice of Technology: Multinational Firms in Brazil",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25, pp.239~264.
- Sato, A. (1997), "The Development of Japanese Companies' International Business Operations", *ICFTU-APRO paper*.
- Stopford, J. M. (1979), *Employment Effect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the United Kingdom*,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 Weiskopf, T. E. (1972), "The Impact of Foreign Capital Inflow on Domestic Saving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2, February, pp.25~38.

附 表²⁰⁾

<부표 1> 1988년 8×8 부문 중간투입계수

	임업	수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운수·보관업	기타산업
임업	0.009848	0.004565	0.013995	0.006064	0.000688	0.000002	0.000009	0.004405
수산업	0	0.021148	0	0.004936	0	0	0	0.000264
광업	0.000068	0.00142	0.000329	0.03907	0.007288	0.000274	0.000249	0.006962
제조업	0.062679	0.203009	0.154198	0.483321	0.406422	0.059911	0.256413	0.15827
건설업	0.00772	0.002686	0.014844	0.001558	0.002991	0.014496	0.001848	0.02207
무역업	0.000112	0.028325	0.019601	0.037768	0.036946	0.028063	0.021472	0.017746
운수·보관업	0.004717	0.017268	0.012454	0.011326	0.025164	0.026764	0.115211	0.008596
기타 산업	0.021435	0.070784	0.124428	0.144838	0.111641	0.173987	0.112265	0.144016
중간투입계	0.106578	0.349204	0.339849	0.728881	0.591139	0.303497	0.507467	0.362328

<부표 2> 1990년 8×8 부문 중간투입계수

	임업	수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운수·보관업	기타산업
임업	0.015549	0.005134	0.016856	0.004266	0.000715	0.000001	0.000003	0.003135
수산업	0	0.025941	0	0.003764	0	0	0	0.000774
광업	0	0.001007	0.000188	0.041553	0.008843	0.000133	0.000332	0.005537
제조업	0.057774	0.230416	0.144531	0.48617	0.364651	0.052335	0.230077	0.160134
건설업	0.00627	0.002779	0.013256	0.001192	0.00252	0.010712	0.002045	0.028269
무역업	0.002906	0.022589	0.013523	0.035749	0.03009	0.033831	0.019664	0.016135
운수·보관업	0.005119	0.039634	0.016563	0.012979	0.017374	0.023085	0.095995	0.009692
기타 산업	0.036454	0.090185	0.121156	0.142311	0.116766	0.195654	0.132756	0.17005
중간투입계	0.124071	0.417684	0.326075	0.727984	0.540959	0.315751	0.480872	0.393726

<부표 3> 1993년 8×8 부문 중간투입계수

	임업	수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운수·보관업	기타산업
임업	0.021415	0.002347	0.003589	0.003716	0.000752	0.000002	0	0.001828
수산업	0	0.017183	0	0.003149	0	0	0	0.000774
광업	0	0.000197	0.000061	0.0412	0.01038	0	0	0.006593
제조업	0.051315	0.230222	0.128632	0.474004	0.361902	0.0518	0.237581	0.135977
건설업	0.003063	0.002604	0.010475	0.001118	0.001917	0.007306	0.001793	0.031388
무역업	0.00303	0.022442	0.012368	0.031766	0.026897	0.031439	0.01649	0.013088
운수·보관업	0.003903	0.044026	0.016983	0.013976	0.017443	0.025231	0.079754	0.010255
기타 산업	0.027257	0.081968	0.14168	0.136813	0.123117	0.213022	0.167442	0.179038
중간투입계	0.109983	0.400989	0.313787	0.705741	0.542409	0.328801	0.50306	0.378941

20) 부표의 자료는 산업연관표(각년도) 통합중분류표를 8개 산업으로 조정하여 계산된 수치이다.

<부표 4> 1988년 총수요, 국내최종수요, 수출, 수입 및 수입계수

(단위: 백만원, 단, 수입계수는 단위없음)

	총수요	국내 최종수요	수 출	수 입	수입계수
임 업	1,706,714	239,461	108,792	966,431	0.607805
수산업	2,537,485	1,101,073	595,837	213,998	0.097546
광 업	6,771,371	-114,871	57,957	5,059,894	0.748937
제조업	188,802,889	46,012,723	40,628,674	3,278,915	0.220247
건설업	21,736,298	19,118,387	171,214	717	-0.000469
무역업	20,789,109	8,764,873	2,958,648	270,494	0.011141
운수·보관업	13,354,970	4,781,469	3,541,463	1,113,896	0.113409
기타 산업	84,645,321	40,257,345	2,404,513	3,941,468	0.047814
합 계	340,344,157	120,160,460	50,467,098	44,356,057	0.153017

<부표 5> 1990년 총수요, 국내최종수요, 수출, 수입 및 수입계수

(단위: 백만원, 단, 수입계수는 단위없음)

	총수요	국내 최종수요	수 출	수 입	수입계수
임 업	1,424,443	11,867	69,480	767,810	0.562880
수산업	3,047,057	1,563,476	541,540	219,974	0.078828
광 업	9,394,081	-313,656	71,229	7,172,069	0.763159
제조업	249,999,898	66,442,026	42,246,056	43,326,781	0.206169
건설업	43,722,213	39,573,423	104,011	0	-0.000033
무역업	27,946,733	12,572,814	3,432,667	251,985	0.002006
운수·보관업	17,079,497	6,057,602	4,133,586	1,275,045	0.098360
기타 산업	122,280,530	57,184,455	2,556,207	4,915,688	0.040631
합 계	474,894,452	183,092,007	53,154,776	57,929,352	0.137358

<부표 6> 1993년 총수요, 국내최종수요, 수출, 수입 및 수입계수

(단위: 백만원, 단, 수입계수는 단위없음)

	총수요	국내 최종수요	수 출	수 입	수입계수
임 업	1,862,704	267,604	72,499	1,047,394	0.582808
수산업	4,016,301	2,282,435	596,860	347,093	0.101953
광 업	14,231,695	93,437	70,661	11,106,202	0.779534
제조업	351,114,906	91,951,712	61,638,615	55,605,278	0.191156
건설업	64,557,102	57,894,659	43,396	8,575	-0.000049
무역업	36,071,997	16,137,949	4,743,787	508,174	0.008564
운수·보관업	25,302,832	8,977,247	6,120,019	1,055,299	0.054814
기타 산업	193,992,008	96,333,916	3,699,324	8,666,810	0.045388
합 계	691,149,545	273,938,959	76,985,161	78,344,825	0.127563